



자동차 Analyst 신윤철
RA 권용일

쏘카(403550)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목적 650억 원 유상증자 결의

◎ 크래프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분석

>> 2026년 4월 30일 쏘카는 크래프톤을 대상으로 보통주 5,098,040주(주당 12,750원, 총 규모 6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 전액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분류되며, 5월 중 설립 예정인 자율주행 신설 법인 '주식회사 에이펙스 모빌리티'에 전액 출자 예정.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인 32,841,902주 기준으로 신주 발행 후 총주식수는 37,939,942주. 발행 후 총주식수 기준 크래프톤의 취득 지분율은 13.44%로 예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기준 45.91%(15,079,210주)는 크래프톤의 합류로 39.74%로 희석될 예정이며, 쏘카 2대주주 롯데렌탈의 지분율 25.70%(8,441,713주)는 22.25%로 희석될 예정.

>> 크래프톤(13.44%)이 3대 주주로 합류함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우호지분(39.74%)과의 합산 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53.1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 양사는 이미 경영진/이사회 차원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관계를 유지해온 바 있으며, 교류 이력을 감안할 때 크래프톤의 지분은 최대주주 우호지분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특히, 2026년 1월 공정위의 어피니티 롯데렌탈 인수 불허 결정으로 2대 주주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크래프톤의 지분은 향후 지분 구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핵심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 또한, 특수관계법인은 현재 7,634,609주,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의 20.1%를 담보로 설정한 주식담보대출(총 350억원, 담보유지비율 200%)을 유지 중. 2026년 3월 18일 공시 기준 담보 주식수 추가 설정 및 만기 연장 확인. 이번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30%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담보 구조 유지 측면에서도 주가 부양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존재할 것으로 판단.

>> 크래프톤은 쏘카 지분 취득과 별도로 에이펙스 모빌리티에도 핵심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 존재. 크래프톤의 추가 출자 가능성 및 크래프톤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 네트워크(유니콘 그로스 펀드, 한화 AI·로보틱스 펀드 등)를 통한 후속 자금 조달 경로 확보 또한 기대 가능.

◎ 향후 쏘카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수익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전망

- ① 자율주행 카셰어링/로보택시 사업: 공시 기준 로드맵 상 L2 카셰어링 시작 후 L4 라이드헤일링으로 단계적 확장 예정. 자율주행 전환 시 운영 시간 및 고객층 확대에 차량당 LTV 구조적 개선. 또한, 현재 쏘카가 운영 중인 테슬라 FSD 탑재 차량처럼 자율주행 카셰어링은 기술 자체가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로 초기 시장 선점 효과 기대.
- ② 자율주행 데이터 판매 사업: 쏘카가 자체 수집한 데이터를 판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율주행 AI 모델의 고도화는 실주행 데이터의 양과 질에 정비례하며, 데이터 확보 규모가 기술 격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 ③ 로보택시 플랫폼: 자사 플릿 운영을 넘어 외부 자율주행 차량 사업자의 차량을 쏘카 플랫폼에 연결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Uber형 플랫폼 모델. 쏘카 앱으로 로보택시 헤일링 서비스를 중개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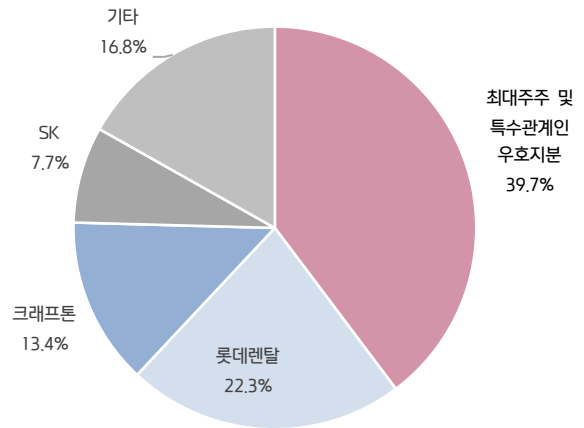
쏘카 유상증자 결정 및 규모에 대한 공시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98,0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841,90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5,000,01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자료: 쏘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유상증자 후 쏘카 지분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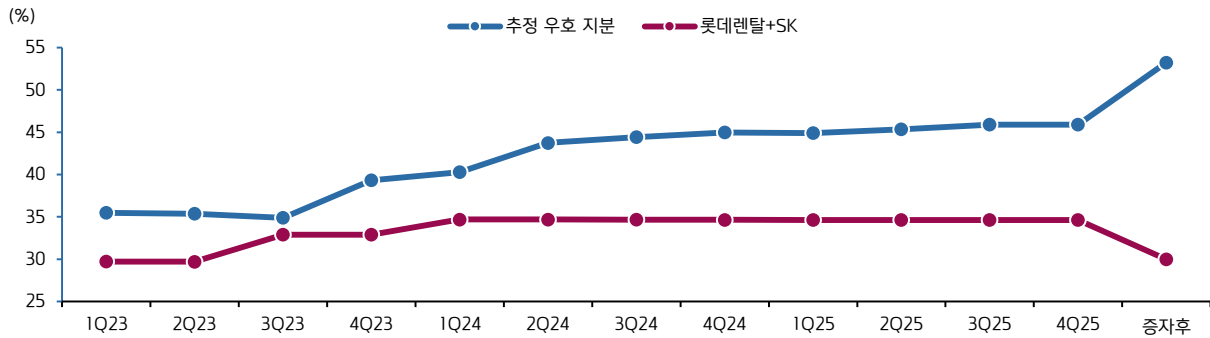


자료: 쏘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1: 총주식수 37,939,942주 기준

주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롯데렌탈, SK 지분은 2025 사업보고서 주수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변동 추이: 최대주주 진영 지분 지속 확대 vs 롯데렌탈+SK 지분은 증자 후 희석



자료: 쏘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1: 증자 후 총주식수는 37,939,942주 기준

주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롯데렌탈, SK 지분은 각 분기 공시 주수 기준

주3: 추정 우호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 크래프트 지분율을 더한 값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04월 30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